

할 줄 믿는다.

주: 지면관계로 본요약 문내의 註도 생략하였으니 해당부문의 인용자료가 필요하신분은 필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◆ 韓國圖書館學會 名稱改正案

孫 正 彪
(慶北大 圖書館學科)

소 위원회가 마련하여 본 이 개정안은 단순히 학회 명칭만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, 그동안 우리 학계의 숙원이었던 학과 명칭 개정과도 관련하여 다루어 보았다. 그러나 학과 명칭이란 그 학과의 특성과 교육 내용의 범위,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, 사회구조의 변화와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내용의 범위를 명칭에 가장 잘 나타내고 나아가 도서관학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보았을 때 學의 명칭도 가장 명백하게 대표하여 줄 수 있는 명칭의 모형을 찾고자 한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.

案으로 제시된 명칭의 선정은 지난 1차 세미나때 보고된 바 있는 외국의 현황 및 설문지 조사결과나 문헌가운데서 그 동안 거론되었거나 거론 될 가능성이 있는 명칭 16개를 놓고 상기와 같은 기준 아래 분석 검토하여 선정하였다. (표 참조)

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제 1 안 문헌정보학 (Biblioinformation Science 혹은 Library and Informatics)

이는 정필모 교수가 이미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고 서울 5개대학 교수 협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바 있는 명칭으로, 도서관학과 정보학을 결합시켜 놓은 명칭이라 하겠다. 다만 도

명 칭 군	선정된명칭안	학회조사결과 선호도
문헌정보학, 도서·정보학 또는 도서정보학, 정보·도서학 또는 정보도서학, 자료정보학, 정보자료학, 서지정보학	문헌정보학	84명(49%)
정보관리학, 정보경영학, 자료관리학, 문헌관리학, 문헌정보경영학 정보경제학	정보관리학 또는 정보경영학	31명(18%)
도서관·정보학 또는 도서관정보학, 정보·도서관학 또는 정보도서관학, 도서관·정보관리학 또는 도서관정보관리학	도서관·정보학	47명(27%)
정보과학 또는 정보학, 기타		9명(6%)
계 16개		171명(100%)

서관학의 연구대상이 도서관이 아니라 문헌에 관계된 모든 문제라는 관점에서 “도서관”이라는 명칭 대신에 “문헌”으로 배치한 것이다.

이 명칭이 사용된 학과는 일본의 도서관정보 대학의 전신인 도서관 단기 대학에서 1971년에 신설학과명으로 사용된 바 있으며, 1962년경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개념은 다르나 이 명칭으로 된 교과목이 개설된 바 있다. 또한 학회가 조사한 선호도 결과도 49%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.

제 2안 정보관리학 또는 정보경영학(Information Management)

이 명칭은 도서관학의 특성과 연구대상 범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學의 명칭에 반영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기 보다는 관념적 내지 시대적 감각에 더 초점을 맞추어 본 명칭으로, 현대사회구조의 변화추이에 비추어 볼 때 고려대상에 넣어 볼 수 있는 명칭이라 하겠다. 여기서 “정보관리학”이라 할 것인가, “정보경영학”이라 할 것인가는 개념자체는 동일한 의미를 가졌으므로 단지 현실지향적이냐, 미래지향적이냐에 따라 결정지위야 될 문제라 하겠다.

이중 ‘정보경영학’이라는 명칭은 아직 동양권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, ‘정보관리학’은 推名六郎가 주장한 바 있으며, 미국에서는 Southern California 硏학이 최근에 명칭을 ‘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Management’로 개칭한 것이 있다. 이밖에 학회가 조사한 선호도 결과는 18%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.

제 3안 도서관 정보학 (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(혹은 Studies))

이는 이미 구미계통에서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명칭으로, 도서관학과 정보학을 결합시켜 놓은 명칭이라 하겠다.

동양에서 이 명칭이 사용된 학과는 일본의 慶應大, 圖書館情報大, 한국의 慶北大 大學院, 中共의 江華大 등을 들 수 있으며, 학회가 조사한 선호도 결과를 보면 27%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.

세우자 도서관

기르자 나라힘

도서관의 평생교육

전통찾는 문화국민